

남·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신념

Fathers' and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osocial Behaviors of Boys and Girls

김예빈(Yae Bin Kim)¹⁾

박성연(Sung-Yun Par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other's and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osocial behaviors of boys and girls. The subjects were mothers and fathers of 60 children in Seoul.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both mothers and fathers responded to the Social Skills Questionnaire. Results showed that : 1) There are no differences in parent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 the importance of prosocial behavior, reasons for the importance of prosocial behaviors, attribution, and socialization strategy. 2) There are a few sex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parents' socialization beliefs.

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사회화 양육신념(socialization beliefs), 나누기 (sharing), 부정적 감정조절(regulating negative emotions), 돕기(helping).

I. 서론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한 자녀 가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자신의 자녀만 위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인지발달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면서 점차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친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적 관

¹⁾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 박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Y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계를 떠나 살 수 없으므로 아동이 친사회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아동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도 매우 중요한 특성이 아닐 수 없다.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행동은 앞으로의 아동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친사회적 행동 능력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자녀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태도와 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가지는 생각,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부모의 신념과 행동과의 관계, 나아가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의 신념은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영향을 받아,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Goodnow, 1988; McGillicuddy-De Lisi, 1985; Miller, 1988) 연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 부모의 신념에 대한 연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정확한 개념 정의나 측정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주로 네 가지 접근 방법, 즉, 귀인적 접근법, 정보처리 모델적 접근법, 구조주의적 접근법, 교류 모델(transactional model)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접근 방법 중, 특히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정보 처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Mills와 Rubin(1990)은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양육신념을 관련 지어 연

구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화에 대한 신념을 주도적 신념과 반응적 신념으로 나누었다. 주도적 신념이란 아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반응적 신념은 아동이 사회 부적응적이고 문제행동을 나타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는 신념이다. 이 중, 주도적 신념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나누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도와주기)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사회적 행동을 잘 하거나 못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사회적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Mills와 Rubin의 주도적 신념은 기존의 다른 신념 연구보다 부모의 신념을 인과적인 순서에 따라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주도적 양육신념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다.

주도적 양육신념은 부모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세운 목표, 특정 사회적 기술에 대한 귀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화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목표는 특정 사회적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 지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뜻하며, 귀인은 아동이 왜 그러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전략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사회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Rubin, Mills, & Rose-Kransor, 1989; Mills & Rubin, 1990).

Rubin과 Mills(1990)에 의해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발달과 지적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McGillicuddy-DeLisi, 1992). 그러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Rubin과 Mills(1990)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만 4~6세 유아의 종단적 연구를 한 것으로, Cheah와 Rubin(2003)의 미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신념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그리고 김은지(2002)의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신념, 또한 박성연(2003)의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주도적 사회화 신념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 행동 중에서도 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금까지 아동의 발달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만을 연구하거나 두 부모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Callan, 1980; Parks & O'Leary, 1975; 이수연, 1985)과,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Parke, 1981; 장가영, 1990)에 의해 증명되었듯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부모의 사회화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들 중, 아버지에 대해 연구한 김은지(2002)의 연구와 어머니에 대해 연구한 박성연(2003)의 연구 사이에 어떤 사회화 전략을 사용하는 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화 양육신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두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원희(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나타나,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어머니만큼 아버지도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신념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성 뿐 아니라 아동의 성도 부모의 신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이다. 예로부터 부모들은 아동의 성에 따라 자녀양육방법, 태도 등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 이는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Gretarsson과 Gelfand(1988)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연구에서,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본성에 기인한다고 지각하고 있어 자녀의 성에 따른 신념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에 따라 아버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도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박성연(2003)의 연구에서도 남·여간 차이가 나타나,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신념에 대한 연구는 연구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예전부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 대해 서로 다른 양육신념을 발달시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화 신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되지는 않지만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신념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은 양육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나누기, 부정

적 감정 조절, 돕기)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도적 사회화 신념(중요도, 중요도 이유, 귀인, 사회화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신념이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 날, 양 부모의 사회화 양육신념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실용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친사회적 행동 원인에 대한 귀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화 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유치원 8곳과 어린이집 세 곳 표집한 만 4세 아동 60명의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총 330부를 배부하였으나, 설문지를 완벽하게 작성한 60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31명 (51.7%), 여아가 29명(48.3%)이었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4세였다. 출생순위로 는 외동이가 21명(35%), 첫째가 17명(28.3%), 둘째가 20명(33.3%), 셋째 이상이 2명(3.3%)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분포는 32~45세로 평균연령은 38.08세이며 36~40세가 40명(6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31~42세로 평균연령은 35.23세로 아버지보다 낮았으며, 31~35세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의 직업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주부 및 학생이 6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0%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33.3%, 전문대 졸업이 8.3%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63.3%, 대학원 졸업이 16.7%, 고등학교 졸업이 15%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1.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본 연구 대상자들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20명(33.3%), 셋째 이상이 2명(3.3%)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분포는 32~45세로 평균연령은 38.08세이며 36~40세가 40명(6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31~42세로 평균연령은 35.23세로 아버지보다 낮았으며, 31~35세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의 직업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주부 및 학생이 6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0%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33.3%, 전문대 졸업이 8.3%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63.3%, 대학원 졸업이 16.7%, 고등학교 졸업이 15%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1.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본 연구 대상자들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머니용 설문지와 아버지용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두 부모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상황(나누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돕기)으로 구성하였다.

1) 양육신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 중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주도적 양육신념'을 측정하고자 한다. Cheah(2001)는 Mills와 Rubin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기술 질문지(Social Skills Questionnaire : SSQ)'와 '아동행동에 관한 이야기(Child Behavior Stories)'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양육신념에 초점을 맞추어

Cheah(2001)의 ‘사회적 기술 질문지(Social Skills Questionnaire : SS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기술 질문지는 세 가지 사회적 기술, ‘다른 아동과 나누어 쓰기(Sharing toys and possessions)’, ‘부정적인 감정 조절하기(Controlling the display of negative emotions during interactions with other children)’, ‘다른 아동 도와주기(Helping other children)’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사회적 기술에 대해 각각 네 가지 내용을 묻고 있다. 즉, 그 사회적 기술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행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reasons), 각각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 두 가지 원인에 대한 귀인(attribution)은 무엇인지, 부모가 4세 아동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떠한 지도방법(Socialization Strategies)을 사용하는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적 기술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은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주도적 양육신념의 주요 구성요소(중요도 이유, 귀인, 전략)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것은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다양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1)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는 각각의 친사회적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각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해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의 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각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Smetana(1995)가 고안한 ‘자기-내적 이유’, ‘도덕적 이유’,

‘사회적 이유’와 ‘발달적 이유’의 네 가지 이유 중 비율이 낮게 나타난 ‘자기-내적 이유’를 제외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자기-내적 이유’는 missing 처리). ‘도덕적 이유’는 연민, 친절, 정의감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예문으로 “나누어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질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이유’는 부모나 사회적 기대와 관련된 것으로, “아이의 사회적 기술은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쳤는지를 보여준다.”를 예문으로 들 수 있다. ‘발달적 이유’는 아동의 성숙이나 발달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이 나이에는, 아동이 나누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대답이 해당될 수 있다. 단,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가 낮게 나온 경우에는, ‘발달적 이유’가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친사회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귀인

친사회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귀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Rubin et al., 1989). ‘내적 요인’은 아동의 기질 및 성향(그 아이는 항상 수줍었다), 연령과 관련된 요인(아직 성숙하지 못 했다), 일시적인 내적 상태(그 때 아마 배고프거나 피곤했을 것이다)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은 습득되거나 학습된 행동(그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집안 환경(그는 아마도 박탈된 가정 배경에서 왔을 것이다), 경험(형제나 친구가 없어서 나누기를 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적 상황(또래 그룹의 규칙이 아마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부모가 같은 대답 내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모두 택했다면 둘 다 코딩되었다.

(4)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화 전략

사회화 전략은 부모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

답을 분류하기 위해서, Mills와 Rubin(1990)의 부호화 체계를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Power Assertion, Information Seeking, Planning, Reasoning, Modeling, Gentle Direction, Planful을 사회화 전략 유형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위주로 하여, '모델링(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교육(아이에게 교훈을 주는 것, 교육하기)', '추론(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의 세 가지 사회화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양육신념에 대한 문항이 양육신념에 대한 중요도를 제외하고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내용은 Cheah(2001)가 개발한 코딩 준거에 의해 부호화하였다. 이렇게 부호화한 응답을 비율 점수로 산출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전체 응답수를 분모로, 각각의 이유에 대한 응답수를 분자로 하여, 비율 점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의 경우, 한 응답자의 전체 응답수가 네 개이고, '도덕적 이유'에 대한 대답이 두개인 경우, '도덕적 이유'에서의 비율 점수는 $2/4$, 즉, $1/2$ 이 되고, '발달적 이유'에 대한 대답이 한 개인 경우, '발달적 이유'에서의 비율 점수는 $1/4$ 이 되고, 이 때 '사회 관습적 이유'에 대한 대답도 한 경우, '사회 관습적 이유'에서의 비율 점수도 $1/4$ 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율 점수를 사용한 것은 본 설문지의 특성상 한 질문에 대해 여러 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설문지의 신뢰도는 전문가와 본 연구자가 전체 부모 설문지의 20%(12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부호화 후, 평정자 간 일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각 양육신념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 대한 분류는 각 항목에 따라 8~92%의 평정자 간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4년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지역의 유치원 8곳과 어린이집 세 곳을 선정하여, 만 4세 아동을 둔 어머니와 아버지, 각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연구자가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2주일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330부를 배부하여 120부(총 24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객관식만 작성한 설문지 20부와, 어머니만 작성한 40부를 제외한 60부(총 120부)만이 본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회수율 : 18%).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부한 설문지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가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기 쉬운 객관식 설문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관식 설문지를 어렵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아동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작성한 설문지를 원했으나, 40명의 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그와 쌍을 이루는 40명의 아버지가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PC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원 혼합모델 분석(2 way Mixed-model ANOVA)을, 사후 검증을 위해,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적 유의도 $p < .10$ 수준에 해당하는 것까지 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의 경우 type I error를 수정하기 위해 Bonferroni의 유의수준 수정법(0.5/3)을 사용하여, adjusted $p < .02$ 수준에 해당하는 것까지 검증하였다.

이원 혼합모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성을 피험자 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으로, 각 양육신념 요인(친사회적 행동의 종류,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친사회적 행동 원인에 대한 귀인, 사회화 전략)을 피험자 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으로 두었다.

III. 연구결과

유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화 양육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혼합 모델 분석(2 way Mixed-Model ANOVA)을 실시하였다.

1.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을 대상으로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나누기, 부정적 감정 조절, 돕기)의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원 혼합 모델 분석(2 way Mixed-Model ANOVA)을 실시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표 1), 어머니의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종류($F(2)=28.08, p < .001$)와 성($F(2)=6.78, p=.01$)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친사회적 행동 종류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 유형 중 ‘나누기’와 ‘돕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는 ‘돕기’에서만 나타났는데($t(58)=-3.21, p=.002$),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돕기 행동’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F(2)=26.79, p < .001$)에 따른 주효과만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와 ‘돕기’를 ‘부정적 감정 조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2.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각각의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중 어떤 이유를 부모가 가장 많이 답했는지, 그리고 유아의 성에 따라,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혼합 모델 분석(2 way Mixed-Model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1>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N=60)

친사회적 행동의 종류	어머니			아버지		
	남아(n=31) M(SD)	여아(n=29) M(SD)	전체(n=60) M(SD)	남아(n=31) M(SD)	여아(n=29) M(SD)	전체(n=60) M(SD)
■ 나누기	4.00(.82)	4.31(.81)	4.15(.82)	3.90(.79)	4.24(.83)	4.07(.82)
■ 부정적 감정 조절	3.10(.91)	3.52(1.06)	3.30(1.00)	3.00(1.03)	3.38(1.15)	3.18(1.10)
■ 돕기	3.61(.84)	4.28(.75)	3.93(.86)	3.81(.87)	4.07(.96)	3.93(.92)

〈표 2〉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N=60)

친 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어 머 니			아 버 지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나누기	■도덕적	.09(.22)	.18(.30)	.13(.27)	.06(.16)	.30(.43)	.18(.34)
	■사회 관습적	.51(.40)	.48(.41)	.49(.40)	.61(.46)	.43(.46)	.52(.47)
	■발달적	.41(.39)	.30(.36)	.36(.38)	.30(.42)	.16(.36)	.24(.39)
부정적 감정조절	■도덕적	.13(.26)	.29(.41)	.21(.35)	.16(.35)	.26(.44)	.21(.39)
	■사회 관습적	.18(.30)	.14(.30)	.16(.30)	.16(.35)	.09(.27)	.13(.31)
	■발달적	.66(.45)	.57(.48)	.62(.46)	.61(.48)	.55(.49)	.58(.48)
돕 기	■도덕적	.25(.36)	.44(.41)	.34(.39)	.19(.36)	.25(.43)	.22(.39)
	■사회 관습적	.20(.33)	.30(.36)	.25(.35)	.35(.45)	.29(.45)	.32(.45)
	■발달적	.32(.42)	.09(.23)	.21(.36)	.32(.44)	.14(.35)	.23(.41)

그 결과(표 2), '나누기'에서, 어머니의 경우, 나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서만 주효과가 나타났다($F(2)=10.65, p<.001$). 사후분석 결과 ($adjusted\ p<.02$), 어머니는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로 '사회 관습적 이유'와 '발달적 이유'를 '도덕적 이유'보다 많이 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중요도 이유에서 주효과($F(2)=8.72, p<.001$) 및 중요도 이유와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F(2)=3.69, p=.028$)가 나타났다. 즉, 도덕적, 발달적 이유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만, 사회 관습적 이유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을 한 결과, 아버지는 '사회 관습적 이유'를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여아의 아버지는 남아의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t(58)=-2.97, p=.004$)로 '도덕적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 남녀 간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부정적 감정 조절의 경우'에, 어머니의 경우, 중요도 이유에서만 주효과가 나타났다($F(2)=17.98, p<.001$). 즉, 아동이 부정적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그 연령에 적

합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부정적 감정 조절'의 경우에만, '발달적 이유'를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이는 사후분석 결과($adjusted\ p<.02$), 검증되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부정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에서만 주효과가 나타났다($F(2)=15.25, p<.001$). 즉,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 조절을 다른 행동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돕기'의 경우에,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성과 중요도 이유간의 상호작용 효과($F(2)=4.34, p=.015$)만이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가 생각하는 중요도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분석 결과 발달적 이유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58)=2.62, p=.011$). 즉,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돕기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연령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더 많이 지적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아동의 성의 주효과만이 나타났는데($F(2)=3.38, p=.071$), 남아의 아버지가 여아의 아버지보다 '돕기'가 중요한 이유로 '발달적 이유'를 더 많이 들고 있었다($t(58)=1.79, p=.08$).

<표 3>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N=60)

친사회적 행동 잘 하는 원인		어 머 니			아 버 지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나누기	■ 내적 요인	.23(.36)	.16(.27)	.19(.32)	.10(.24)	.14(.26)	.12(.25)
	■ 외적 요인	.65(.37)	.81(.28)	.73(.34)	.90(.24)	.83(.31)	.87(.27)
부정적 감정조절	■ 내적 요인	.34(.35)	.47(.42)	.40(.39)	.34(.37)	.31(.39)	.33(.38)
	■ 외적 요인	.66(.35)	.53(.42)	.60(.39)	.63(.39)	.62(.42)	.63(.40)
둑 기	■ 내적 요인	.26(.36)	.31(.36)	.28(.36)	.26(.38)	.14(.26)	.20(.33)
	■ 외적 요인	.74(.36)	.66(.38)	.70(.37)	.68(.42)	.76(.37)	.72(.40)

3. 친사회적 행동 원인에 대한 귀인

유아의 성에 따라 부모가 생각하는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거나 못 하는 원인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원 혼합 모델 분석(2 way Mixed Model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의 경우 (표 3),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에 대한 귀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모두 주효과가 나타났고(어머니의 경우, '나누기', '부정적 감정 조절', '둑기'가 각각 $F(1)=45.40, p<.001$, $F(1)=3.85, p=.06$, $F(1)=19.70, p<.001$, 아버지의 경우, 각각 $F(1)=19.70, p<.001$, $F(1)=9.62, p=.003$,

$F(1)=35.64, p<.001$),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동이 나누어 쓰기를 잘 하는 원인에 대한 귀인의 경우에,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다($F(2)=3.17, p=.080$).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각각의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으로 '외적 요인'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외적 요인'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t(58)=-1.94, p=.06$).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못 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표 4), 어머니($F(1)=6.64, p=.013$)와 아버지($F(1)=4.26, p=.043$)의 경우 모두 나누어 쓰기를 못 하는 원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만 부정적 감정 조절을 못하는 원인($F(1)=6.13, p=.016$)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나누기'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이가

<표 4> 친사회적 행동을 못 하는 원인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N=60)

친사회적 행동 못 하는 원인		어 머 니			아 버 지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나누기	■ 내적 요인	.39(.42)	.34(.38)	.19(.32)	.37(.43)	.40(.39)	.12(.25)
	■ 외적 요인	.61(.42)	.66(.38)	.73(.34)	.60(.44)	.60(.39)	.87(.27)
부정적 감정조절	■ 내적 요인	.65(.41)	.53(.35)	.59(.39)	.50(.41)	.53(.42)	.33(.38)
	■ 외적 요인	.29(.38)	.43(.35)	.36(.37)	.34(.37)	.40(.41)	.63(.40)
둑 기	■ 내적 요인	.40(.42)	.41(.44)	.28(.36)	.35(.43)	.38(.44)	.20(.33)
	■ 외적 요인	.53(.43)	.55(.45)	.70(.37)	.55(.45)	.52(.45)	.72(.40)

〈표 5〉 사회화 전략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N=60)

사회화 전략	어머니			아버지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전체 M(SD)	
나누기	■ 모델링	.16(.33)	.17(.33)	.17(.33)	.23(.38)	.41(.42)	.31(.41)
	■ 교육	.24(.40)	.29(.43)	.26(.42)	.31(.42)	.27(.39)	.29(.40)
	■ 추론	.33(.44)	.18(.38)	.26(.41)	.11(.28)	.07(.26)	.09(.27)
부정적 감정조절	■ 모델링	.19(.33)	.40(.43)	.29(.39)	.25(.34)	.34(.38)	.29(.36)
	■ 교육	.37(.44)	.19(.36)	.28(.41)	.32(.42)	.32(.42)	.32(.40)
	■ 추론	.25(.37)	.12(.26)	.19(.33)	.22(.36)	.05(.20)	.14(.30)
돕기	■ 모델링	.38(.44)	.59(.44)	.48(.45)	.43(.44)	.57(.44)	.50(.44)
	■ 교육	.19(.35)	.16(.33)	.17(.34)	.16(.32)	.24(.37)	.20(.35)
	■ 추론	.14(.32)	.09(.23)	.11(.28)	.12(.31)	.02(.09)	.07(.24)

나누어 쓰기를 못 하는 원인으로 ‘외적 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 조절’의 경우에, 어머니는 아동이 이 행동을 못하는 원인으로 ‘내적 요인’을 더 많이 들고 있었다.

4. 사회화 전략

유아의 성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돕기 위한 부모의 사회화 전략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혼합 모델 분석(2 way Mixed Model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나누기’에 대한 분석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 사회화 전략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2)=5.40, p=.006$),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adjusted $p<.02$), 아버지는 ‘모델링’과 ‘교육’을 ‘추론’보다 많이 언급하였다. 즉, ‘모델링’과 ‘추론’ 사이에, ‘교육’과 ‘추론’ 사이에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9)=3.19, \text{adjusted } p=.002, t(59)=2.89, \text{adjusted } p=.005$).

‘부정적 감정 조절’에 대한 분석 결과, 어머니의 경우, 사회화 전략 유형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2)=5.91, p=.018$). 여아의 어머니들이 남아의 어머니들보다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모델링’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t(58)=2.11, p=0.19$), 남아의 어머니들이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교육’($t(58)=1.68, p=.071$)과 ‘추론’($t(58)=.58, p=.017$)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버지의 경우, 사회화 전략 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2)=.72, p=.027$), 사후분석 결과(adjusted $p<.02$), 아버지는 ‘모델링’과 ‘교육’을 ‘추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각각, $t(59)=2.38, p=.019, t(59)=.60, p=.019$).

‘돕기’에 대한 분석 결과, 어머니($F(2)=13.80, p<.001$)와 아버지($F(2)=18.29, p<.001$) 모두 사회화 전략 유형의 주효과만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adjusted $p<.02$),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동이 남을 잘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모델링’이 ‘교육’과 ‘추론’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t(59)=3.53, p=.001, t(59)=4.69, p<.001$), 아버지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t(59)=3.46, p<.001, t(59)=5.89, p<.001$), ‘모델링’을 가장 많이 선택함을 보여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

유아의 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종류('나누기', '부정적 감정 조절', '돕기')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친사회적 행동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와 '돕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중 미국과 중국의 만 3세~6세 아동의 어머니들이 '나누기'와 '돕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한다는 Cheah(2001)의 연구결과와, 아버지가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한 김은지(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 4세 아동에게는 부정적 감정조절이 불필요하거나 어렵다고 보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반해, '나누기'나 '돕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두 가지 행동이 '부정적 감정 조절'에 비해 어린 연령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일 뿐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의 '돕기 행동'에 대한 중요도에서만 나타나,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돕기 행동'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남아보다 여아의 '돕기 행동'을 더 중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박성연(2003)의 연구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은 다르지만, '나누기'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나누기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여아의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남아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와, 과거에 비해 성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부모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신념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나누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중요도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어머니는 '사회 관습적 이유'와 '발달적 이유'를 '도덕적 이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아버지는 '사회 관습적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때문에 나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 '나누기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아버지가 '사회적 이유'를 들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Cheah와 Rubin(2003)의 연구에서 중국의 어머니들이 '나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를 든 것과 미국 어머니들이 '발달적 이유'를 든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부정적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발달적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부정적 감정 조절'을 아동

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김은지, 2002)와 미국의 만 3~6세 어머니들이 이 시기에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부정적 감정 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Cheah, Rubin, 2003).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전체적으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박성연(2003)이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모두 '발달적 이유'를 들고, Cheah와 Rubin(2003)의 연구에서 미국의 만 3~6세 어머니들이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발달적 이유'를 들고, 중국 어머니들은 '사회 관습적 이유'를 들었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각 친사회적 행동에 따라 중요한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돕기'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 관습적 이유'로 나누기가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대답한 것은 위의 친사회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 아버지가 '나누기'를 친사회적 행동 유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나누기 행동'을 다른 행동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그리고 부모 자신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달적 이유' 때문에 '부정적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은(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 조절'에 대한 부모가 평가가 낮게 나와, '발달적 이유'는 이 경우에만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부모가 '부정적 감정 조절'을 세 가지 행동 중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이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행동이 만 4세 아동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본다.

'나누기'와 '돕기'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가 이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나누기'의 경우, 여아의 아버지가 남아의 아버지보다 '나누기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도덕적 이유'를 많이 들었다. 이는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서 '나누기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도덕적 이유'를 든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박성연, 2003; Cheah & Rubin, 2003). 즉,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에만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대상에서 차이가 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남아에게서 보다 여아에게서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로 '도덕적 이유'를 더 많이 들고 있다. '돕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가 이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의 부모가 여아의 부모보다 '돕기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발달적 이유'를 많이 들고 있었다. 이는 박성연(2003)의 연구에서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발달적 이유'를 많이 든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나누기'와 '돕기 행동'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나누기'에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Shigetomi, Hartmann, & Gelfand (1981)는 남아보다 여아가 천성적으로 더 친절하고 사려 깊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는 아버지들이 남아보다 여아의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로 친절하고, 사려 깊고, 의무적이기 때문이라고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3. 친사회적 행동 원인에 대한 귀인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거나 못 하는 원인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동의 본성, 연령 관련 요소, 일시적인 내적 상태와 같은 ‘내적 요인’과 학습, 가정환경, 경험, 상황적 요소와 같은 ‘외적 요인’의 두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세 가지 친사회적 행동 모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으로 ‘외적 요인(습관, 배운 행동, 집안 환경, 경험, 상황적 요소)’을 ‘내적 요인(성향, 연령관련 요소, 일시적 내적 상태)’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세 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외적 요인’을 들었다는 결과와, 박성연(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세 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외적 요인’을 들었다는 연구결과, 또 Cheah와 Rubin(2003)의 연구에서 중국 어머니들이 ‘외적 요인’을 들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한국 속담 중에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의 특정 행동이 타고나기 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 쌓인 습관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거나 못 하는 원인을 습관이나 부모의 가르침 등의 ‘외적 요인’에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으로 ‘내적 요인’을 든 서구 연구결과(Cheah & Rubin, 2003)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유교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으로 부모들이 아동의 특정 행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성에 따라 ‘나누기 행동’을 잘 하는 원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

의 어머니보다 ‘외적 요인’을 더 중시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박성연(2003)의 연구와 Cheah와 Rubin(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Gretarsson과 Gelfand(198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남아 보다는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본성이라고 해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못 하는 원인에 있어서, ‘나누기 행동’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나누기를 못 하는 원인으로 ‘외적 요인’을 들었다. 이는 위의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과 같은 결과로, 부모들은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못 하는 것도 역시 아동 자신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외적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 조절 행동’에서는 어머니의 경우에만 아동이 이 행동을 못 하는 원인으로 ‘내적 요인’을 더 많이 들고 있었다. 이는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아동이 부정적 감정 조절을 못 하는 원인으로 ‘내적 요인’을 더 많이 들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누기’나 ‘도와주기’는 타고나기 보다는 부모에 의해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타고난 특성으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부정적 감정 조절은 아직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외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사회화 전략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사회화 전략에 있어서는, 먼저 ‘나누기’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략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모델링’과 ‘교

육'에 대한 응답이 '추론'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는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나누기를 지도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지 설명하고 아이와 함께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결과와 불일치하고, 박성연(2003)의 연구와 Cheah와 Rubin(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모델링 행동을 많이 선택했다는 결과와는 일치한다.

'부정적 감정 조절'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전략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 하도록 돕기 위해 '모델링'과 '교육'을 '추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경우는 박성연(2003)의 연구결과와 Cheah와 Rubin(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모델링'을 '부정적 감정 조절'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하고자 했으며,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교육'과 '추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김은지(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사회적 행동에 대해 남아에게는 행동에 대한 설명과 이유 및 직접적인 모델링을 제시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행동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방법을 제안해주는 지도방법을 사용한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모델링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이론과 연관시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즉, 각 아동이 동성 부모에 대해 동일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여아의 어머니와, 남아의 아버지가 각각 동성 아동에 대해 부정적 감정 조절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가 남아의 경우에 '교육'과 '추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부정적 감정 조절을 못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델링'과 같이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적은 방법보다는

'교육'과 추론'과 같이 아동에게 직접 가르치거나,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가 남아의 부족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돕기'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사회화 전략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모델링'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이는 박성연(2003), Cheah와 Rubin(2003)의 미국 어머니들의 경우와 일치했다.

사회화 전략에 대한 분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돕기'를 제외한 '나누기'와 '부정적 감정 조절'에서 어머니는 '모델링'과 '교육' 뿐 아니라 '추론'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사회화 전략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추론'보다는 '모델링'과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다양한 사회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해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화 전략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모델링'과 '교육'을 자주 선택하고 있었다. 이 중, '모델링'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회화 전략이고, '교육'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회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 두 문화권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남제(1989)의 연구에서, 한국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델링과 직접적인 가르침을 강조한다는 것에서도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나

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두 부모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친성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양육신념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즉, 부모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로 여아의 경우, 발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남아에게 더 직접적인 사회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한 Cheah와 Rubin(2003)의 연구를 비교해 볼 때, 한국 부모들의 양육신념은 두 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같은 동양문화권인 중국과 비슷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화 전략에 있어서 중국 부모와 같은 교육을, 그리고 미국 부모와 같은 모델링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두 문화권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상류층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사회 계층에 일반화를 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양육신념이 부모의 사회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연구들(Kohn, 1969; Schaefer와 Edgerton, 1985; 김은지, 2002)에 따라, 이의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서 연구대상자의 사회 계층이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이 있

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부모의 양육신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대상의 수가 적었다. 총 330쌍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의 쌍이 모두 맞는 설문지는 60쌍에 불과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40명의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바로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양육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의 제한 상 양육행동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간의 관계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먼저, 주관식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이끌어 수 있어서 신념연구의 특성상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아 아동의 발달에 대한 양부모의 신념과 차이점,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신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전 연구들(김은지, 2002; 박성연, 2003; Cheah & Rubin, 2003)이 한쪽 부모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또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제한점을 보완하여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중국과 미국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비교연구(Cheah & Rubin, 2003)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문화간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은지(2002).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2003).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2003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pp. 65-188.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신념과 유아기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가영(1990).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Callan, V. J.(1980).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 Australian, Greek, and Italian Couples in Sydney, Australi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482-497.
- Cheah, C. S. L.(2001).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Behaviors.
- Cheah, C. S., & Rubin, K.(2003). European American and Mainland Chinese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3, 1-22.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etarsson, S. J., & Gelfand, D. M.(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64-269.
- McGillicuddy-DeLisi, A. V.(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Belief System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Gillicuddy-DeLisi, A. V.(1992).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personal-social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115-142).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ills, R. S. L.,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Parke, R. D.(1981). *Fathering*.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 O'Leary, S.(1975). Father-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newborn period : Some findings, some observations, and some unresolved issues. In K. Reisel and J. Meacham(Eds.).
- Schaefer, E. S., & Edgerton, M.(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287-31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metana, J. G.(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2), 299-316.

2005년 8월 30일 투고 : 2005년 11월 2일 채택